

서울대 인문계 401점·자연계 412점 지원 가능

광주교육청 2024 수능 정시 분석
의예과 전대 419점·조대 416점
지스트 397점·광주교대 364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실재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학교 지원 가능 점수가 인문계열은 401점, 자연계열은 412점 내외로 예측된다.

11일 광주진학부장협의회(진학협회)와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단 진학정보분석팀이 광주지역 고3 재학생을 기준으로 지난 8일 발표된 실재점 점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교육청과 진학협회는 “올해 수능은 역대급 불수능으로 난도가 높았던 전년도에 비해 더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총평했다. 해당 분석결과에 영어와 한국사를 제외한 국어·수학·탐구 3개 영역 표준점수 6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했다.

서울대학교 외 고려대나 연세대 인문계열은 398점 내외, 자연계열 393점 내외에서 지원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광주교육대학교 지원가능 점수는 364점 내외,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지원가능 점수는 397점 내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404점 정도에서 지원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장 높은 점수컷을 보여줄 것으로 예

상되는 자연계열 의예과 중 전남대는 419점, 조선대는 416점 내외가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의예과를 제외한 전남대 자연계열은치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과)(지역) 413점, 약학부(지역) 408점, 수의예과 404점, 전기공학과 387점, 간호학과(지역) 361점, 수학과 362점, 자연계열 지원가능 점수는 수학 지정(미적분·기하) 학과 348점, 수학 미지정(확률과통계·미적분·기하 모두 지원 가능) 학과는 340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남대 인문계열은 영어교육과 366점, 국어교육과 363점, 행정학과 362점, 경영학부는 361점, 정치외교학과 356점, 국어국문학과 354점, 인문계열 지원가능 점수는 345점 내외로 예측된다.

조선대 자연계열은 치의예과(지역) 412점, 약학과(지역) 407점, 간호학과(지역) 337점 내외로 판단된다.

조선대의 경우 정시 선발 비율이 전년도 20.5%에서 올해 8.8%로 감소해 정시 지원 시, 수시 이월 인원 확인의 중요성이 확대됐다.

올해 수능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내년 1월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1월 중순부터 각 대학에서 차츰 합격자를 발표하며 오는 2월7일부터 합격자 등록이 시작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분석자료와 배치기준점수는 2024학년도 정시 모집요강에 의한 것이며 수시 이월 인원 발표 시 정원이 변경될 수 있다”며 “배치기준점수는 표준점수에 따른 단순 지원가능 기준 점수이므로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대학별 환산점수로 계산해 유효리 정도를 판단해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4일 오후 4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대강당에서 고3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실재점 결과 분석 설명회를 진행한다. 수험생 정시모집 대입지원을 위해 같은 날 오후 7시부터 수험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광주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정시모집 지원 대비

대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3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생, 학교 밖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정시모집 대비 집중상담을 오는 18~23일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jinhak.ge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 캠페인

광주 북구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 직원들이 11일 북구 중흥동 원룸밀집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일탈 예방과 술·담배 등의 유해환경

광주 북구 제공

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청소년보호법위반 안내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檢 ‘사건 브로커 수사’ 광산경찰 압수수색

A경정 과거 수사 무마 혐의

청탁 비위에 연루된 경찰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의 일환으로 일선 경찰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1일 광주광산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가 광산경찰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한 A경정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또 협조공문을 토대로 경찰 측에 A경정 근무 시절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키스) 결제 이력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경정은 광산경찰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검경브로커 성모(62)씨로부터 수 백만원을 건네 받고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인 탁모(44)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정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 브로커’ 성씨는 20여 년 전부터 쌓아올린 검찰·경찰 인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다리 역할’을 해왔다.

전국 각지에서 코인 투자 사기를 벌인 뒤 경찰 수사 무마를 하려는 탁씨로부터 18억5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수사 무마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탁씨는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전하고 수익금도 보장하겠다고 전국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인사 청탁 경정 연루자, 지방자치단체 관공급사 비위 등 여러 갈래로 후속 수사를 하고 있다.

정성현 기자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광주 19건·전남16건

직장갑질 119 설문조사

광주·전남 지역 공무원 직장 내 갑질 신고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9월 4~11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53명(15.3%)이 폭행·폭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137명 중 8명인 5.8%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이중 서울의 연평균 신고건수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가 19건, 전남이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본청 공무원 인원수 대비 비율로 보면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은 1만1158명 중 57명(0.5%)의 공무원이 신고한 반면, 광주는 전체 공무원 2512명 중 0.8%(19명), 전남은 2403명 중 0.6%(15명)가 직장 내 갑질로 신고했다.

‘폭행·폭언’의 비율은 이보다 낮았으나 직장인 10명 중 1명 이상이 폭력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폭언·폭행을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359명이다. 괴롭힘의 유형으로 24.0%가 ‘모욕·명예훼손’, 20.2%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꼽았다. 송민섭 기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